11월 25일 AI 아침 브리핑

국내 소식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스마트건설 전시회, 국내 대학의 반도체 소재 AI 분석 연구, 그리고 창원에 들어서는 국방 AI 데이터센터 소식입니다.

---

1.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 오늘 개막…피지컬 AI 로봇 818개 부스

구분: 건설·BIM AI **일자·출처**: 2026-11-24, 전자신문 보도(국토교통부 발표)

- 국토교통부가 오늘(25일)부터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2026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를 엽니다. 7회째인 이 행사에 258개 기업이 818개 부스를 운영하고, 스마트 건설관리, 안전관리, 유지관리, 로봇·건설자동화, 설계자동화, ESG 등 6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 AI 특별관에서는 피지컬 AI와 로봇, AI 인프라, 전력·에너지 기술을 집중 소개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숙련 용접사의 기술을 학습한 강교량 용접 협동로봇을, KCC는 현장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지정 구역을 스스로 칠하는 자율도장로봇을 선보입니다. 철근 배근 상태를 원격 검측하는 디지털 감리 플랫폼과 AI 에이전트 기반 철도 현장 안전관리 솔루션도 공개됩니다.
- 공공부문도 참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율주행 풀베기로봇과 터널화재 원격진압설비를, 국가철도공단은 고출력 레이저 터널 굴착 기술과 AI 철도 신호 연동시험 로봇을, LH는 모듈러 스마트홈 실물주택과 피지컬 AI 순찰로봇을 전시합니다.
- 개막식에서는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피지컬 AI 기반 건설현장 안전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민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386개 기업) 위원장이 대우건설에서 GS건설로 교체됩니다. 발주처·대형 건설사와 기술 기업을 잇는 실증(PoC)·판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포럼, 채용설명회도 열립니다.
-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내년에 피지컬 AI 기술의 검증·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 엑스포를 국제행사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 주의: 부처 발표를 바탕으로 한 행사 안내 보도로, 전시 내용은 예정 기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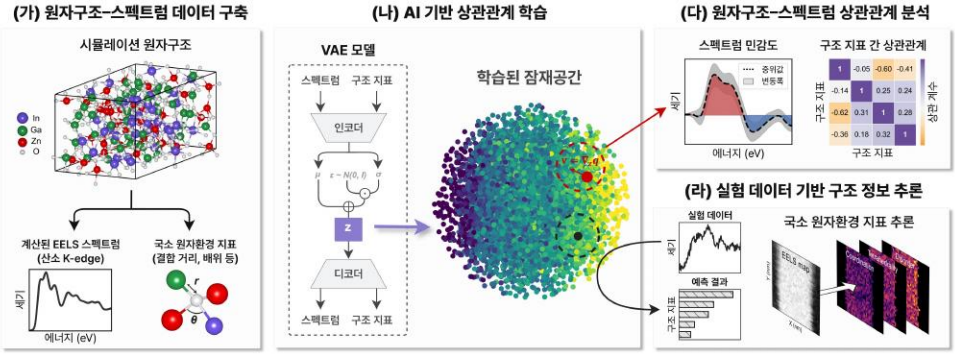


원문: https://www.etnews.com/20261124000431

2. 연세대 연구팀, AI로 비정질 반도체의 원자 구조 들여다보는 분석법 개발

구분: 국내 AI 연구 **일자·출처**: 2026-11-23, 연세대학교 보도자료

- 연세대 물리학과 김관표 교수와 융합과학공학부 장우선 교수 공동연구팀이 전자현미경 분석과 AI를 결합해, 원자 배열이 불규칙한 비정질 반도체의 미세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계산재료과학 학술지 'npj Computational Materials'에 10월 8일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 대상은 디스플레이 박막 트랜지스터 소재로 널리 쓰이는 IGZO(인듐·갈륨·아연 산화물)입니다. 비정질 물질은 원자 배열이 불규칙해 전자에너지손실분광법(EELS) 측정 신호가 겹쳐 나타나고, 신호만으로 원자 주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 연구팀은 밀도범함수이론(DFT) 계산으로 다양한 원자 구조와 측정 신호 쌍을 만들고, 변분 오토인코더(VAE)로 둘의 관계를 공통 잠재공간에 학습시켰습니다. 이 잠재공간을 변화시키며 반응을 추적해 원자 배열이 달라질 때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량 분석하고, 신호만으로 원자 주변 구조를 추론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실제 IGZO 박막 트랜지스터 측정 데이터에 적용해 반도체와 절연막 경계면의 산소 관련 구조 변화와 제조 시 산소 압력에 따른 차이를 확인했고, 별도 원소 분석 결과와도 일치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 기존 AI 분석이 구조에서 신호를 예측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번 방법은 구조와 신호의 관계를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LG디스플레이 연구진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습니다.
- 주의: 대학 보도자료 기준으로, 독립적 재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술지 게재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원문: https://www.yonsei.ac.kr/bbs/sc/50/944707/artclView.do

3. 한화, 창원에 180MW 국방 AI 데이터센터 본격 구축…1단계 10조 투자

구분: AI 산업·정책 **일자·출처**: 2026-11-24, 뉴시스·연합뉴스·매일경제 등 보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설명회)

- 한화그룹이 경남 창원에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화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4일 창원 건설 현장에서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에게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 창원사업장 인근 약 1만3000평 부지에 들어서며, 2028년 7월 일부 가동을 시작해 최종 180MW 규모의 고집적 GPU 서버 센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상 원전 1기의 약 13%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 1단계 사업에만 10조원을 투입합니다.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진주 국민보고회에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55조원의 선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그룹 발전 자산과 연계해 국내외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민간 주도 구축으로 통상보다 기간을 4~5년 단축한다는 설명이며, 군 AI 역량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 주의: 규모와 일정은 회사 계획 발표 기준이며, 가동은 2028년 이후의 예정 사안입니다. 관련 수치는 연합뉴스·매일경제 등 복수 매체가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원문: https://www.fnnews.com/news/202611241655214428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4148600003